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조건 많아 실효성 없다”

■ 주택협회 '바람직한 주택정책 과제' 세미나 주장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요구도

한국주택협회 신훈 회장은 19일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주택협회 주최로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주택거래의 극심한 침체와 미분양 급증으로 정상적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새로운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 연구위원은 ‘주택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택지확보 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기본사업 절차와 소요기간은 건설기간을 제외하고 최소한 41주가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업기간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추가돼 주택가격 상승까지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법은 주택법과 건축법, 농지법 등 82개 법령이고 주택사업 승인 신청시 20~25개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부행위 명시제(negative list system)’와 통합심사, 회의록 공개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도시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규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회적 필요성을 간과한 채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은 개발이익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적인 실득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입

대주택공급비용의 강화를 전제로 다른 규제에 대한 폐지와 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김경호 현대건설 상무는 “주택업계의 미분양 상황으로 각 건설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 사정으로 시장친화적인 주택 정책이 제도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분양 대책은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너무 많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수요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종가세 완화 등으로 외지인들의 지방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책의 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용(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집중 호우... 차 문 꼭꼭 닫고 불법주차 하지 마라

‘장마로 차가 물에 잠기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보험서비스 회사인 인슈넷과 손해보험협회는 19일 장마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우선 장마철에 주차해놓았거나 운행중인 차가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자차) 항목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자차 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 따라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인슈넷은 “강변·하천변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된다고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또 작은 계울을 건너다 급류를 만나면 차를 돌려오거나 차를 그냥 둔 채 피신해도 된다”고 밝혔다.

■ 장마철 유용한 자동차 보험상식

운전자 과실로 보상 안되고 불법 주차엔 보험료 할증도

그러나 자동차 안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보관한 물품까지 보상해주는 것은 물에 젖으면 망가지는 물품은 차 안에 두지 않는 게 좋다. 또 차의 도어나 선루프를 열어두는 바람에 차 안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수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폐차하면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범위 안에서 수리비 전액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다. 이때 차량기준가액은 사고 발생 시점에 보험개발원이 정해놓은 액수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상을 받아도 침수에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예컨대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안에 제대로 주차해놓은 경우가 그렇다. 불법 주차를 했을 때 할증된다.

이와 별개로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차를 잃어버려 똑같은 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받으면 취·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침수를 막기 위해 ▲주차 시 창문과 선루프를 닫았는지 확인하고 ▲주차장 안에 주차할 때도 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작년 자동차 1대당 세금 187만원

전년보다 11% 늘어... 총 30조원 국가 전체 세수 15%

지난해 자동차 1대에 부과된 세금이 평균 187만1천원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관련 세수총액은 30조원 가량으로 국가 전체 세수의 15.5%를 차지했다.

19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자동차 관련세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1천624만8천대의 등록차량에 총 30조7천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는 2006년 보다 4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국가 총 세수의 15.5%에 달한다. 차 1대당 평균 세금은 187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11.1% 늘었다. 단계별로는 취득 단계에서 38만1천원, 보유 단계에서 18만원, 운행 단계에서 131만원씩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동차 관련 세수 중 운행단계 세금의 비중이 70.1%로 가장 많았고 취득 및 보유단계 세금의 비중은 각각 20.3%, 9.6%였다.

협회측은 에너지 세계화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이 인상된 점과 자동차 내수 판매가 2006년보다 5.5% 가량 증가한 점, 7~9인승 자동차세가 인상된 점 등을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협회 관계자는 “취득 및 보유단계 세금은 비중이 줄어든 반면 운행단계 세금이 유류세 인상으로 늘어나고 있어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세금 비중이 여전히 국가 조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세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관련 세금의 대폭 인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제조업체 하반기 채용 늘린다

상의 150곳 조사... 280여명 신규로 뽑을 듯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하반기 신규 채용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일자리 실태조사를 받은 결과 전체의 40.8%가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갖고 있으며 채용인원은 286명으로 상반기 278명에 비해 8명(2.9%) 늘었다.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이유로는 ‘인력부족’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확보’(20.5%), ‘매출·이익증대 예상’(20.5%), ‘경기회복 예상’(11.4%) 등의 순이었다.

신입사원 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은 근무의욕이 41.6%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응능력(22.8%), 인성(16.8%), 전공 지식(15.8%), 인턴십 등 기업체합(2.0%), 외국어능력(1.0%) 등의 순이었다.

또 인재채용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42.9%가 ‘기업 핵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들었고 채용직원 조기퇴직(19.4%), 구직자 기대에 못 미치는 근무여건(19.4%), 낮은 기업인지도(12.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주택담보대출 급증

4월중 6조원대 육박... 가계대출 잔액도 10조원 넘어서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4월중 광주·전남 등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광주·전남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조6천65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월(6조6천649억원)에 비해 587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주

택담보대출은 3조9천22억원으로 한 달새 431억원이나 늘었다.

전남도 4월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1조4천892억원으로 전월보다 71억원 늘어난 등 총 가계대출이 4조623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국의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4월 현재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485조3천6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는 전월 대비 4조8천88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10월(5조639억원)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26조3천369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3천393억원 늘었다. 이같은 증가폭은 2006년 12월(3조1천313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가계대출이 4월에 2조5천472억원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7천739억원이나 늘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토부장관 “분양가 상한제 보완할 생각 없다”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9일 “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 상황에 피로를 열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급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정부가 합동 담화문을 통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예산 당국을 설득하기도 어려웠지만 정부가 1천억 정도 예산으로 2만대 정도만 줄여주면 큰 불을 끄겠다 싶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컨테이너 운송업체와 위수탁 운송업체 지주간 운송복합 합의에 대해 “지금 물류가 딱 막혀있기 때문에 우선 막힌 것을 풀어줘야 하고 합의는 합의대로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택정책과 관련 “참여정부 몇년 동안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에 함몰됐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규제 위주로 하다보니 부작용이 생겼으며 여론에 떠밀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미분양 문제도 양산됐다”며 “미철 전에 내놓은 미분양 대책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아파트가

팔리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할 생각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어렵게 만들었는데 쉽게 걷어낼 수 없고 보완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미분양과 관련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법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통폐합이 꼭 진척은 아니고 우선 중복되는 요소들과 군살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속 돌로 나눠 놓을지 합치는 것이 좋을지는 몇가지 대안을 놓고 최선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입맛 돋우는 오이고추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 지하 1층 매장에서는 여름철 더위에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돋워주는 오이고추를 8~9개당 1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로넷	[연봉2300]SK-T 광주역/우선승 114상당일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6/20	02-780-9595
맛조은	월드자이언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1	062-262-2293
포도인주	헬싱보트 및 상담/포도삽작업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2400	06/21	062-222-0945
이안멀티콤	편집디자인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6/23	062-226-5599
한국국립대학교	2008년 사무직 경력사원 (인사,노무,교육)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6/23	062-953-1771
신영하이테크	생산관리직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3	062-949-8800
이인한테크	웹 개발 및 기술 상담 업무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4	070-7567-6811
해원에스티(주)	영업관리(지원)/인사,총무 경력자(7년)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5	062-958-7033
남화도건(주)	토목기사(산림기사) 경력직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6/26	062-520-1051
㈜화인코리아	공장 시설 전기관리 경력직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6/26	061-330-4523
네오개발(주)	[경력/생산직/기술직/관리직]분야별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6	062-361-2610
대영	설계팀/총무팀(경력)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6	062-670-0321
대성직업전문학교	[광주 전체]컴퓨터응용프로그래밍 교사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27	062-513-6100
좋은공간	가구디자인(설계 및 고객관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27	062-264-114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대졸 이상 고학력자 고용률 최하위권

OECD 30개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가장 낮아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자의 고용률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졸 이상 여성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률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눈높이에 맞는 ‘팬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사실상 실업 상태를 선택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고용률은 76.8%로 OECD 30개 회원국 중 터키(76.1%) 다음으로 낮았다. 고용률이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고용률이 76.8%라는 것은 대졸자 100명 중 77명 정도만이 일자리를 갖고 있고, 나머지 23명은 실직 또는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84.1%)에 비해서는 7.3%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대졸 이상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무려 92%에 달했고, 스위스는 90%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국가	고용률 (%)
아이슬란드	92.0
스위스	90.0
노르웨이	88.8
영국	85.9
포르투갈	85.3
스페인	85.3
이탈리아	84.8
네덜란드	84.4
오스트리아	84.5
미국	82.5
일본	82.4
한국	76.8
터키	76.1
OECD 평균	84.1